

# 진보교육감 '압승' ... 교육계 희비 엇갈려

### '보수성향' 교총 "교육에 진영논리 안돼"

### '진보성향' 전교조 "교육개혁 갈망 반영"

지난 13일 치러진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중 14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도 쓸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반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총연합회(전교조)는 "교육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반겼다.

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당선자들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민의를 경계하지 수용하고,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담아내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역교육은 사실상 진영논리에 기댄 한 쪽으로 치우친 교육"이었고 이로 인해 많은 논란과 갈등도 표출되어 왔다"며 "교육에는 결코 보수와 진보가 없음을 잊지 말고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병폐는 정책이나 제도의 잦은 변경과 이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으로 지난 직선 교육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직선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들이 여전히 표출됐다"며 "특히 남북 문제와 특검 등 국가적·정치적 현안과 현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를 등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가 묻혀 가뜩이나 관심이 낮은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를 넘어 '무관심'으로 변한 것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유치종등 교육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며 "당선자는 이같은 점을 무겁게 인식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교육의 본령을 실천하는 데 매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교육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진보적인 교육정책에 대

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로써 경쟁논리와 경제원리를 교육에서 배제하고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를 근거 없이 비방해 표를 얻으려는 온갖 마타도어가 극성을 부렸음에도 전교조에 우호적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고 전교조 활동 경력이 있는 당선자가 오히려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며 "결국 전교조 OUT"이 아뉘잖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 각지로부터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흑색선전의 시비들을 모았다"며 "전교조와 교육시민사회는 후보의 당락과 상관없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관찰자에 머물러야 했던 현실 또한 안타깝다"며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혁 입법이 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교사는 교수와 달리 현실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에 임후보하지도 못하고, 유·초·중·고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초·중·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피선거권이 부정당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참목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지만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교육정책들을 현장에 구현하는 사람은 결국 현장의 교사들이니 만큼 교육현장과 교육시민사회로부터 나오는 의견과 제안을 중심으로 무겁게 여거는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2019 수도권 주요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 열어

전북교육청은 2019학년도 수도권 대학 입시설명회가 16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린다고 밝혔다.

도내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입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여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도권 대학 입학전형 설명회는 16일~17일 이틀 동안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고3 수험생 뿐 아니라 고·2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2019학년도 입학전형 및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전년도 입시결과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의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수도권 대학 중 서울시립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건국대, 전남대, 중앙대의 입시설명회가 열리며, 17일에는 한양대, 인하대, 한국외국어대, 성균관대, 한국기술교육대, 경희대의 입학전형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김재훈기자

## 원광대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 사업 선정

### 원불교사상연구원 8월 15일~16일 한국종교 근대화 학술대회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박맹수)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2018년도 학술대회 지원 사업 인문·사회 분야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불교사상연구원은 오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풍학과 원불교를 비롯한 '근대 한국종교의 토착적 근대화 운동'을 주제로 한일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한일 양국에서 서구적 근대성과는 다른 비서구적 근대성을 고민해 온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히 비서구적 근대화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근대 한국 개벽종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토착적 근대화 운동'에 대해 이론과 사례 양면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한 4부로 나눠 진행되는 가운데 1부에서는 비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고, 제2부에서는 근대 한국 개벽종교에서의 토착적 근대성을 탐색하며, 제3부 개벽종교의 토착적 근대화 운동의 사례 고찰에 이어 마지막 제4부는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제1부 발표는 평생을 비서구지역의 근대성을 연구해 온 한일학계의 원로들로 구성됐으며, 25년 동안 일본 교토포럼에서 '동아시아의 공공성'을

연구해 온 김태창 중앙포럼 주간 인도와 아프리카 연구를 집약해 최근 '토착적 근대' 개념을 고민한 요카이치대학 기타자와 기신 명예교수, 동아시안 소논학회론에 이어 유교적 근대' 개념을 제시한 미야자마 히로시 성균관대 명예교수, 학문의 탈식민화와 토착화를 주장해 온 조동일 서울대 명예교수, 30여년 동안 동학과 원불교 연구에 매진한 원광대 박맹수 교수 등이 비서구지역의 근대성을 서구적 근대성과 다른 틀로 설명할 예정이다.

제23부는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할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로 알려진 교토대 오구라 기조 교수, 한일정치사상 전문가 이산정책연구원 김석근 부원장 종교적 영성과 신비체험을 연구하는 서울대 종교학과 성해영 교수를 비롯해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과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동학에서 원불교에 이르는 개벽종교에 나타난 한국적 근대성과 근대화 운동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주장해 온 비서구적 근대화론을 집단지성의 형식으로 담론화함으로써 지난 1세기 동안 서구 중심 일변도로 치우친 한국학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 전북대, 몰도바 등 동구권 국가 대학들과 교류 강화

### 농생명·수의학 교류

### 한국어센터 설립 등도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농생명 중심 국가 경제개발을 추진 중인 몰도바와 남부 우크라이나 주요 대학 등 동구권 국가 대학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동구권 국가 대학들은 한류 문화와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큰 곳이어서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을 통한 교류의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는 윤병숙 전북대 국제협력본부장 등 방문단은 몰도바 정치, 경제의 주요 인사를 배출한 몰도바 경제대학(ASEM), 구 소련시절 최고 수준의 농업대학인 몰도바 농생명 및 수의과학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몰도바 국제자유대학(UJIM)에서 개최한 한국학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ASEM 대학 Grigore Bolosteanic 총장은 한국의 농부신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은 오로지 정부와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국민의 열정



전북대학교가 몰도바 등 동구권 국가 대학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몰도바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한류교육.

이라고 칭송하며 전북대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협력을 희망했다.

몰도바 국제자유대학과 전북대가 공동개최한 한국학 컨퍼런스에서 윤병숙 본부장은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한국유학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윤 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류 열풍으로 시작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위주에서 한국의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취업 및 한국과 출신국가와의 교류분야에 인재들이 활용되어야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방문단은 우크라이나 오데사

로 이동하여 200년 역사의 우크라이나 남부 국립사범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최근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학과와 한국어센터 설립 등을 논의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로 역사, 경제, 산업 등 우크라이나 선진도시중 하나이며, 한국어 교육 및 한국유학에 대한 관심이 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전북대는 필링도리아, 한국어 교육연수 등을 통한 유학생 유치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오데사 농대의 MOU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최대 곡창지대인 오데사 지역의 농생명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훈기자



**전북은행**

준법감사인 심역일·재 2018-다-37호  
(심사일자: 2018. 1. 30 현재)

제5회 한옥마을 품바왕명인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www.jbbank.co.kr

1588 - 4477

www.jbbank.co.kr